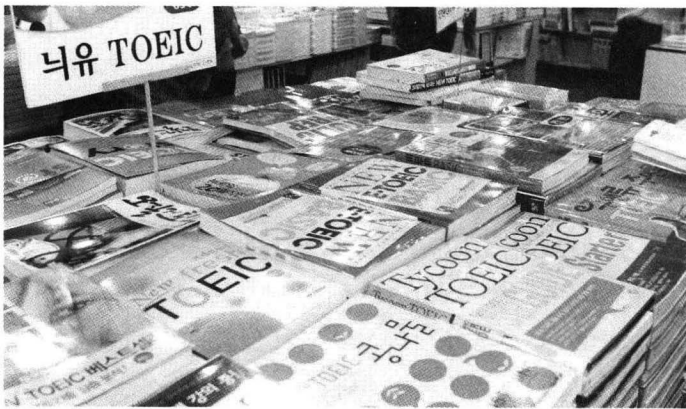


# 뉴토익 성장세 낙관, 시기상조... 꾸준한 유형 분석 필요 중국어 교재는 잠정 독자층 기대 소수 겨냥 러시아·스페인어 교재 호조 예상



취업 필수 자격시험으로 자리 잡은 토익이 지난 5월 '뉴토익'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외국어 출판시장, 특히 토익관련 출판계에는 일대 긴장이 감돌았다. 시험 응시 횟수와 소위 '찍기' 능력에 따라 고득점 달성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던 시험 유형이 대폭 개정된다는 소문에 수강생과 출판업계는 일제히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에 앞서 올해 1월부터 5월 개정 전까지 토익에 응시한 인원은 77만 7171명으로 집계, 최고치를 달성한 것이 관심 정도를 나타낸다. 또 전문 외국어 교재 출판사는 물론 종합 출판사의 어학교재 팀들은 그간 출간해 온 기존 교재들을 지난 7월 이전 할인 가격에 처분하고 여름 방학 시장동안 뉴토익 교재 판매를 시작했다. 토익은 1982년 1월에 국내 처음 선을 보인 후 90년대 말부터 영어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며 그 시장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학원가의 수강경쟁은 물론 교재 출판에 있어서도 명장사들이 집필한 교재가 불티나게 팔리기도 했다.

뉴 토익에서 가장 두드러진 유형 변화는 듣기 문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영어 등 다양한 발음과 악센트가 나온다. 그러나 시험이 시행된 후 토익교재 출판시장 분위기는 기대만큼의 판매율을 나타내지 못한 실정이다. 한 토익 교재 출판인은 "뉴토익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긴 했지만 시험유형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어서(문제

수 변화와 파트 6,7의 변화 정도) 실전연습 관련 교재에 주력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응시자 움직임은 민감하게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서점가 외국어 교재 부분에서 베스트셀러 순위를 장악하고 있는 해커스출판사도 "토익 Listening과 Reading 교재가 별도로 판매 중에 있지만 Reading교재가 월등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전 토익과 뉴토익 시장에서 역시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있다고 전했다. 토익위원회 한 관계자는 "개정 토익의 읽기파트에는 직장인들이 업무 중 흔히 활용하는 계약서, 비즈니스 레터 등이 많이 출제됐다"고 말해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뉴토익 시험의 정착기간을 기본적으로 내년에서 길게는 후년까지로 예상한다. 이에 외국어학습교재 출판기획자는 "뉴토익 교재는 사실 평년수준보다 못미치는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들도 일단 문제 유형이 바뀌었다고 하니 책을 사보는 형

편이지만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기존 교재를 활용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해커스출판사에서 실시한 응시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토익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1위는 달라진 듣기 파트 발음이었고, 2 위로는 파트7(독해)에서 두 개의 지문이 나오는 유형으로 인한 시간분배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해커스출판사 마케팅 최재호씨는 "뉴토익 이후 어휘교재가 예상외의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토익 기본서 시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토익이 진정한 영어실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만큼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단순 외우기식의 방법이 아닌 실력이 쌓여야만 점수가 향상한다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토익교재 출판인은 "토익도 이제는 컴퓨터 베이스로 전화될 것이기 때문에 선부른 예측과 움직임은 금물"이라고 평가했다.

뉴토익 시험은 12월 한 번 더 유형변화가 있다. 의사소통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인 '말하기 능력'과 '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가 기존의 토익시험과는 별도로 12월9일 국내에서 처음 시행된다. 종합 출판사의 토익교재 팀들은 일단 12월 시험을 두고 본다는 입장이다. 토익 시험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YBMSisa출판사는 TOEIC 출제기관 ETS 뉴토익 공식 수험 준비서인 "ETS TOEIC Test"를 비롯해 총 16종 33권의 신간을 출시하여 뉴토익 교재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토익 관련 출판사들은 "실제 시장규모는 열어봐야 알 것"이라면서도 토익시장 자체 규모가 향후 수 년동안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토익만큼 공신력 있는 대체 시험이 출현하기 전까지 출간 동향에 민감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2외국어 시장은 여전히 일본어와 중국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적인 규모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일본어 출판 부분에서는 길벗 이지톡, 제이플러스, 사람in 등 일본어 출판 후발주자들의 강세가 돋보인다. 일본어 전문 출판사의 관계자는 "단행본 출판보다 안전하다는 분석 때문인지 종합 출판사들의 합세가 두드러졌다"면서 "일본문화가 개방되면서 게임, 애니메이션에 열광하는 청소년층 수요가 많다. 중국어가 일본어 시장을 일부 잠식시킨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있지만 오히려 고등학교 제

2외국어 교재시장도 꾸준히 나빠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출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출판사 마다 기획과 편집에 주력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7-8년 전에는 집필자의 수준이 판매율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엔 기획력이 중심이 된다. 앞으로 영어 시장처럼 새로운 학습법을 소개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재 개발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02년 정점에 달했던 중국어 교재 시장은 최근 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수요 때문에 경쟁적으로 참여했던 군소출판사는 물론 대형 출판사들이 손을 뗀 상태다. 출판계에서는 언론이 거품을 유도했다고 분석하지만 외국어 교재 전문 출판사측은 "거품이 빠지고 실제 수요가 안정 상태에 돌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양문고의 중국어 교재팀 강은하 차장은 "꾸준히 교재를 출간하고 있는 전문 출판사들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까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독학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설명이다. 중국어는 성조, 발음, 한자 때문에 초급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그러나 최근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선택하는 고등학교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기초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교재를 수요 할 '잠재 고객'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 밖에도 출판사들은 아직 독자가 극소수이긴 하지만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이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다. 대학출판부나 교수들과 연계한 교재 위주의 소극적 출판이 주를 이뤘던 언어들도 전문 출판사들의 기획력과 디자인 노하우를 접목 할 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민**

취재 송보경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